

김정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주제 101 (2012)년 4월 20일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혁명적명절로,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흥모와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분출이었으며 주체조선의 100년사에 대한 만민칭송의 대정기축전이었다.

우리는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으며 당의 호소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은 민족과 전세계가 우러러바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1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다.

20세기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인류역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명적변혁의 세기였으며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격렬한 투쟁의 세기였다. 이 격변하는 세기에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치사에 흔적을 남긴 이름있는 정치가와 위인들이 많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어리신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탁월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서 20세기를 반세기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업정공으로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세기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최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령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주권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었다. 우리 수령님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스승이었고 자신은 인민의 충직한 아들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터전으로 하여 진행되고 그 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바쳐졌다.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곧 사상리론으로, 로선과 정책으로 되었으며 인민대중에게 쉽게 리해되고 그들이 나아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리론을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었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은 수령님께서 력사에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오게 한 근본비결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 든든히 의거하시였기에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전위조직을 꾸리며 군대를 창건하고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거창한 사업들을 동시에 밀고나가 주체혁명의 새 력사를 개척할수 있었으며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패도 없이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실수 있었다.

오늘 이 땅위에 일떠선 불매의 사회주의강국과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위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지난날 력사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이 시대와 력사의 중심에 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김일성동지는 자주성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탁월하고 세련된 혁명의 령도자이시다.

자주는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자주성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그것을 혁명의 원리로, 혁명방식으로 정립하고 구현하신것은 인류사상사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에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었다.

조선혁명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었으며 기존공식과 방법으로는 수행할수 없는 전인미답의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었다.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신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꾸리시였으며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와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간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나라 당, 국가들과의 관계도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발전시켜오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을 높이 떨치시고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주성은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라는것을 확증하시였으며 20세기 력사의 흐름을 자주의 길로 이끄시여 인민대중이 지배와 굴종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자주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하시었다.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가 만연되던 지난 세기에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수령님의 결단도 참으로 위대하였지만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것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배심있게 떠밀어오신 수령님의 혁명실천은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기적이였다.

오늘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

의 뚜렷한 상징으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어로 빛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포함하여 전력사적기간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누가누구를 하는 첨예한 군사적대결속에서 진행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피어린 판가리싸움과 준엄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해오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강적들을 정치사상적, 전략술적우세로 타도하심으로써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를 받으시었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술술로 백승을 펼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고결한 품모를 지닌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품모에 있어서나 인간적 품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들의 위인이시다.

김일성동지는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오신 위대한 혁명가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기나긴 세월 인간이 당할수 있는 모진 슬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면서도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시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팔순이 넘은 고령에도 공장 농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집무실에서 순직한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

수령님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 제일배짱가이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군사적위협은 그칠새 없었고 우리 혁명앞에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서는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든든한 배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무비의 담력으로 난국을 맞받아나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승리에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시었다. 혁명은 곧 동지이고 동지는 곧 혁명이라는 철리에 기초하여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동지애의 가장 아름다운 력사를 수놓아오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기간 혁명을 해오시면서 그가 누구든 일단 동지적관계를 맺으시면 그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주시였으며 수천수만의 혁명전사들을 한 품에 안아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동지애에 의하여 일찌기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결합된 새형의 혁명가들의 대오가 꾸려졌으며 오늘은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를 밑뿌리로 하여 온 사회가 수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전변되었다.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는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동지애의 력사이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닌

위대한 인간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뜨거운 인정미와 한없이 검박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따듯이 대해주고 보살펴주시었다. 수령님은 적들앞에서는 백두산 호랑이와도 같았지만 전사들과 인민들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린이와 이야기할 때에는 어린이의 심정이 되어주시고 로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어주시였으며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이 사람들의 속생각까지 다 헤아려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기쁨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촌에 가면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할 때에는 룡담도 즐겨하시고 유모아와 생활적인 말씀도 자주 하시었다. 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를 받으시였지만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특혜와 특전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겸허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였다. 하기에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들과 수령님사이에는 한치의 간격도 없었으며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을 끝없이 호모하고 충정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대해같은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닌 성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한없이 넓고 은혜로운 품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품에 안아 믿음을 주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영원한 동행자로 내세워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 만사람을 따듯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넓은 도량으로 안아주시였기에 어제날 민족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까지도 수령님을 재생의 은인으로, 민족의 어머니로 따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생을 빛내일수 있었다.

한없이 폭넓고 웅심깊은 인정미를 지닌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과도 두터운 우의를 맺으시었다.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우리 수령님을 한번 만나보이면 그 고결한 인품에 매혹되어 수령님을 끝없이 호모하고 존경하였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은 세상에서 동지와 벗이 제일 많은분이시었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사상으로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함으로써 사람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회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인민의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수령이시다

(1 면 에서 계속)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인민대중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 방법에 의거하여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완성할 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방법인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하고 자기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보편적이며 생활력있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세계적범위에서 자주화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사전적인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토대로 된다.

혁명적인 당과 정권, 군대는 혁명위업의 개척과 전진,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투기이다. 력사는 당과 정권, 군대를 어떻게 건설하고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과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공화국정권, 무적의 인민군대가 있고 수령님께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주신 우리 인민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도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권관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고있다. 백두의 혁명강군으로 자란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의 어렵고 중요한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선군문화의 창조자, 보급자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당과 국가, 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켜나가는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조국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새 세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기틀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지난 세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자 제국주의반동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세계적인 대정기파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서있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공고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

주적인 사회주의이다.

주체성은 사회주의의 본성이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와 통일번영의 길이다. 자주적인 정치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혁명의 근본 원칙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있게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 나라의 존엄과 위엄을 높이 떨치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와 주체적인 민족문화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첨단을 돌파하고 21세기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며 문화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키고 강성국가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원칙이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처음으로 사회주의위업을 민족자주위업과 하나로 결합시키고 사회주의건설 전과정이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꽃피는 과정으로 되게 하시었다.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민족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조국, 민족자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어 주체혁명위업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단순히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령도적지위를 넘겨주는 문제로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사업으로,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그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위업계승에서 기본은 수령의 후계자문제라는것을 천명하시고 이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었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어 훌륭한 기질을 가져오게 하시었다. 수령님의 뛰어난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로써 개척한 주체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보다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었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고귀한 유산이 있어 오늘 조국통일운동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동일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국제적정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반동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주적이고 공정한 국제관계의 수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빛나게 완성되리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 주체의 령장으로 영생하시었다.

3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결과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 가장 충직한 혁명전우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함으로써 김일성주의를 위대한 생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빛나게 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당과 군대를 백전백승의 김일성동지의 당, 김일성동지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리 러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와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부터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으며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었다.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 위대한 헌신에 의하여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함께 영생하시고 이 땅위에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끊임없이 흐르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주체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준엄한 시련이 닦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지켜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반동들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속에서도 수령님의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의 사회주의 정치리념을 빛나게 실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정치이며 수령님의 유훈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자위적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대를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드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켜 당과 군대의 혼연일체를 실현하고 군민단결을 이룩하여 우리 사회의 밑뿌리를 반석같이 다지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도강행군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었다.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 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

하고 정치군사강국으로 존엄과 위엄을 떨치며 우리 식의 경제강국으로 새롭게 비약하고있는것은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세기적인 기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정력적인 령도로 6.15통일시대를 펼쳐시고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헌신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 선군조선은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자기 운명을 당당하게 개척해나가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장군님께서 계시였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고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은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 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갈수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시련이 닦쳐와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리를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 국가,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 국가건설과 혁명무력건설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그대로 이어나감에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고 반석같이 다져 정치사상강국의 위엄을 높이 떨치며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함남의 불길,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따라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특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주체적인 문화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문화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에서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든 일꾼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양 떼 흐 르 는 삼 덕 농 장

건축물을 놓고 평가할 때 출입문이 창이 없는 건물을 생각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창이 없이 무채광을 요구하는 건물이 있기는 하나 건물의 출입을 위한 문과 내부에서 방들의 호상연계를 위한 문은 그 어느 건물에나 다 있다.

건주에는 문과 창이 속하는데 이것들은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재료로 만든다. 문은 통행과 채광, 환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크기와 형식, 색선택을 잘하여야 한다.

우선 크기선정에서 나서는 요구는 규모가 작은 살림집이나 사무실들과 달리 대중이용건물에서 빠짐성 문제가 나서기때문에 이것을 타산하여 문의 크기와 개수를 바로 정해야 한다. 입장때와는 다르게 건물안에서 비상 빠짐 다시말하여 화재나 오염을 비롯한 재해가 있을 경우

민족적형식을 나타내야 할 건물에서는 문 형식함에 있어서 민족건축유산계승의 원칙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민족의 우수한 표현형식과 생활습이 반영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기능상요구에 맞게 문의 여닫이형식을 용해 선정하는 데서는 건물의 사명에 따라 문의 조형화, 예술화표현을 알맞게 하여야 한다. 장식과 조

건축물과 문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은 건축발전을 더욱 촉진시킨다. 목조건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건물로서, 단순한 유형과 구조로부터 복잡한 유형과 구조로의 건축발전과정에 문은 단지 출입이나 환기를 위한 사명에서 벗어나 조형예술성, 위압과 웅장함을 나타내는 무기할수 없는 하나의 당당한 건축구성요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건축물을 형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되고있는 문은 선정하는 데서는 건물의 특성에 맞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제기된다.

우 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허용기준시간전에 나갈수 있도록 크기와 개수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웅장한 감을 표현할것을 요구하는 건물에서는 문의 품위를 무게가 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선정해야 할것이다.

건물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방들의 문치수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리용되는 설비들의 크기와 그 용도에 따라 면밀히 타산하여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문선정에서는 형식을 건물의 사명과 성격, 기능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의 사명과 성격, 기능에 맞게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해야 하며 병원이나 살림집, 사무실, 위생실과 같은 기능이 다른 건물에서의 문은 자기의 특성에 맞게 형태와 크기, 마감색깔을 바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단순해보이면서도 건물구성에서 한갓 요소에 지나지 않는 문은 건축물의 기능상요구를 만족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하며 조형예술성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 최초의 식당

우리 나라 력사에서 식당이라 는 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리조 태조때인 1390년대라고 한다.

그전까지는 대체로 시골의 길거리나 도시의 번두리에서 술이나 밥을 팔면서 나그네를 치던 주막이 식당기능을 하였지만 주막을 식당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손님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파는 집으로서 《식당》이라고 처음으로 불렀던 곳은 리조 태조시기에 성균관의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였던 서울의 《진사식당》이다.

《진사식당》은 리조 태조때 유교를 배워주기 위해

설립한 명륜당과 함께 지은 33칸으로 된 건물로서 서울시 명륜동에 위치하고있다.

식당이라는 《진사식당》이라고 부르게 된것은 식당에 다니는 유생들이 과거시험을 치기 위하여 비시험에 합격되어 《진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기때문이라고 한다.

진사들은 광반자식들에게 유교교리를 가르치던 우리 나라 최고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서 공부할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이 성균관에서 입학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적힌 장부에 점을 하나씩 찍어주었는데 아침, 저녁 두끼 1점을 기록하였으며 점수가 쌓여 50점 또는 100점(시기마다 기준점수가 달랐음)이 되면 과거응시자격을 주었다고 한다.

점수를 기록하는 기본본적은 성균관에서 속석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날자만 채우려는 《날라리유생》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나타난다. 결과 인체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장내질병발생위험성이 커진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위, 간장, 소장에서의 소화액 흐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변비발생률이 높아진다.

10살 난 소년의 꿈

우리 나라 지도를 만든 리조시기의 지리학자 김경호(19세기초~1864년)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포부와 꿈을 안고있었다.

그가 10살 잡히던 해 어느날이었다. 아침에 어머나가 나갔던 그는 저녁늦게야 돌아왔다.

아들의 행처를 몰라 걱정하던 어머니가 어디엔 갔었는가고 묻자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저 길을 따라 그냥 가다가 해가 저서 되돌아오는 길이에요.》, 《저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보고싶어요.》, 《길을 걷는데 정선이 팔려 배고픈줄도 몰랐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있던 아버지가 말하였다.

《길이란 중간에서 여기저기로 갈라질수도 있단다.》

그 말에 어린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북쪽으로 가면 암록강까지 갈수 있나요?》

《그럼, 그러나 여기서 암록강까지 가려면 열흘이상이나 걸린다.》

《아! 우리 나라 땅이 그렇게 넓은가요? 아버지, 난 큰 다음에 우리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볼래요.》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 땅을 한번보고싶은 소년의 욕망은 나날이 더해만갔다.

10살 난 소년의 이 말은 한갓 동심의 꿈이 아니었다. 후에 그는 근 30년이라는 긴 세월 모진 고난을 이겨내며 조국 땅 방방곡곡에 대한 헌신적 조사와 실측을 진행하여 《대동여지도》를 제작 출판할수 있었다.

달아에는 껌질이 불그스레한것과 흰것 두가지가 있다.

《북쪽은 흰 불그스레한 달아는 흰 달아보다 영양가가 높은것처럼 생각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두가지 달아의 성분은 조사해보아도 껌질색이 영양과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달아의 껌질색은 달의 품종에 관계된다. 알날이용달의 껌질색은 흰색이며 알날이와 고기생산용 껌질색은 불그스레한 색이다. 그러므로 달아의 껌질색에 따라 영양가가 차이난다.

가정화목의 진리를 새겨주는 노래

— 가요 《가화만사성》 —

은 나라가 한집안식솔처럼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뜨거운 정이 공기처럼 흐르는 공화국의 하늘가에 한편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있다.

집집마다 거울처럼 걸어놓았네
가정화목 꽃피우라 가르친 글말
세상만사 밝혀주는 해빛과 같이
내 조국에 빛을 뿌리네 (후렴)

정을 다해 꽃피우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그 뜻
사랑다해 꽃피우시다
은 나라에 가정의 화목
삶의 진리 새겨주는
친밀결발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 어린 이 글말은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은 나라 가정에 따스한 봄빛을 안겨주고있다.

사랑다해, 정성다해 가정화목을 꽃피울 때 은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노래의 2절에서는 가정화목은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만복의 문이라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억만금은 집안그늘 못
가시어도
가정화목 만복의 문 열어
준다네
웃음속에 모든 가정 화목
해지면
내 조국은 더욱 빛나리
...

하심 가화만사성!
가사는 만경대가문에서 아름답게 꽃피운 위대한 이가 문은 영원히 빛나리라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수령님이 가르치신 가화만사성
장군님이 꽃피우신 가화만사성
만경대의 가문에서 꽃피운 가문
내 조국에 영원하리라
...

가화만사성이라는 심오하고 철학적인미가 깊은 이말을 소박하고도 세련된 시형상으로 일관하고있는 노래는 아름답고 우아한 선물형상과 더불어 가사의 의미를 부각시켜주고있다.

4/4박자에 《도》-대조상에서 흐르는 노래의 선물은 고상하고 다정다감한 정서적색깔과 함께 여러가지 선물표현수단을 가사에 북중시적 가사와 선물이 특속적이면서도 잘 짜여져있다.

노래 《가화만사성》은 절세위인들께서 가르쳐주시고 꽃피워주신 가정화목의 진리를 새기고 가정을 보다 아름답게, 화목하게 꾸러내갈 사람들의 정서적심리에 맞는 노래인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부르고있다.

이 노래와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서 웃음꽃이 만발할 때 경에는 김정일최고령도자를 자애로운 아버지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의 화목은 더욱더 굳건해 질것이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가지 일이 잘된다는 뜻을 담고있는 이 말은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가르쳐주시고 몸소 친필로 남겨주신 삶의 진리이다.

화목한 가정은 가정을 이루고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다.

하기에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에서는 《가화만사성》이라는 글말을 거울처럼 걸어놓고 만경대가문에서 꽃피운 가정화목의 가풍을 따라배우기 위해 애쓰고있는것이다.

노래의 1절에서는 세상을 밝혀주는 해빛과 같이 내 조국에 빛을 뿌리는 이 글말을 사랑다해, 정성다해 꽃피우시는 깊은 뜻을 노래하고있다.

가정은 사회의 한세포이다. 억만금의 재산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었지만 가정의 화목은 잃으면 되찾기 힘든 법이다.

가사에서는 웃음속에 모든 가정의 3절에서는 가화만사성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꽃피워주신 만경대가문의 가풍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친필로 가르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나라 가정에 만발한 꽃으로 피어나도록

4/4박자에 《도》-대조상에서 흐르는 노래의 선물은 고상하고 다정다감한 정서적 색깔과 함께 여러가지 선물표현수단을 가사에 북중시적 가사와 선물이 특속적이면서도 잘 짜여져있다.

노래 《가화만사성》은 절세위인들께서 가르쳐주시고 꽃피워주신 가정화목의 진리를 새기고 가정을 보다 아름답게, 화목하게 꾸러내갈 사람들의 정서적심리에 맞는 노래인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부르고있다.

이 노래와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서 웃음꽃이 만발할 때 경에는 김정일최고령도자를 자애로운 아버지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의 화목은 더욱더 굳건해 질것이다.

우리 말 상식

능청스럽다, 천연스럽다

둘 다 아닌보살함을 이르는 말로서 공평뜻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능청스럽다》는 속으로는 엉클하면서 겉으로는 《천연스럽다》는 뜻을 가지고있다. 부정적색채를 띤 형용사이다.

예: 그는 능청스럽게 말하였다.

한 선비에게 서당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무엇이든지 서당에 가지고갔다가는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래서 선비는 아들에게 큰 주머니를 내어주며 말하였다.

《너는 서당에 들어가거든 모든것을 이 주머니에 넣어라.》

《알았어요.》 다음날이었다. 서당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선비가 물었다.

《야, 너 붓과 종이 어찌하였느냐?》

《모두 주머니속에 있소이다.》

《그런데 그 주머니는 어디에 있느냐?》

《아차!》

노: 20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1 000여개정도에 달하는 뇌의 신경세포는 20살부터 해마다 줄어드는데 40살에 이르면 신경세포의 수가 하루에 무려 1만 개씩 상실되기 시작하면서 뇌기능을 비롯한 뇌기능이 떨어진다.

예: 55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건강한 백은 유해로운 세균과 유익한 세균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백두산건축연구원 백도원

인체의 로화시간표(1)

백안의 유익한 세균은 55살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장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과 인체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장내질병발생위험성이 커진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위, 간장, 소장에서의 소화액 흐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변비발생률이 높아진다.

백광: 65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방광은 오줌

일반적으로 남성은 한번에 약 946ml의 공기를 들이키는데 70살에 가서는 그 량이 약 473ml로 줄어든다.

목청: 65살부터 퇴화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드는데 따라 사람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거센 소리로 된다. 이것은 목구멍안의 연부조직이 약해져 목소리의 음질과 울림정도, 음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5살이 되면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센 소리로 되며 음질이 낮아진다. 남성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더욱 약해지고 음질은 오히려 높아진다.

눈: 40살부터 로화된다. 시력이 떨어질때 따라 눈은 40대중년대의 표징인 흰시로 된다.

심장: 40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신체가 로화됨에 따라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효율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동물원의 발전 추세

◎ 동물원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되고있다.

20세기에는 동물원의 기능과 역할이 단순히 동물들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놓고 사람들이 야생동물들을 관람할수 있는 관람시설에 국한되어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동물원은 단순히 동물을 관람하는 휴식터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물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교육장소, 생태계의 보존과 동물의 번식을 위한 주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동물원을 사람들에게 야생동물들과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고 관찰할수 있는 교육장소로 되도록 과학기술적으로 꾸리고있다. 또한 동물학, 수의학, 유전학 등을 전공하는 전문가들과 동물학 협회, 동물연구단체들이 동물원을 직접 경영하면서 동물연구를 심화시키는 연구기지로 만들고있다.

오늘날 동물원은 사람들의 밀렵과 산림도벌로 멸종의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보호증식시켜 다시 놓아주는 동물보호구역, 파괴된 환경을 보존하는 생태환경보존구역의 역할을 하게 하고있다.

민족과 다식

차림에서 없어서는 안될 음식으로 되었다.

다식에는 알곡, 고려약재, 꽃가루, 동물성재료를 리용한 쌀다식, 콩다식, 강판다식, 갈면다식, 산안다식, 송화다식, 광안다식 등 여러가지가 있다.

원재료의 고유한 맛이 살아있는 다식은 맛이 달고 고소하며 향기롭고 건강에 좋은 약효를 가지고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제사상에는 송화다식, 쌀다식이 기본이었으며 혼례상에는 오색다식(호란송화다식, 파란콩다식, 흰쌀송화다식, 검은콩다식, 분홍빛농마다식)을 올려놓았다

다식의 무늬만 보고도 어느 집의 다식인지 알수 있었으며 다식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꿈게 빛은 절편에 여러가지 무늬와 모양을 찍는 풍습도 다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다식은 차와 잘 어울리는 식품으로서 차를 마실 때 함께 먹으면 은은한 차향기와 어울려 독특한 맛을 낸다.

특히 빈속에 차를 마실 경우 위 케데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구토나 설사, 배아픔 등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식을 곁들여 먹는것이 좋다고 한다.